

토종 기업의 자존심은 안전으로 지켜!

Press Kit



면도기, 칼 분야의 외길을 걸어온 토종 한국기업 (주)도루코는 최근 6년 면도기 개발과 더불어 미국, 멕시코, 중국 해외법인에 이어 베트남으로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는 끊임 없는 면도날 연구의 결과로 칼날 품질에 있어서는 세계 으뜸이다.

면도기날, 칼날에 있어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세계 무대에서 최고로 평가 받고 있는 (주)도루코에 안전은 빠질 수 없을 터, 이들의 안전 속으로 들어가 본다.

취재 | 최종덕 기자

머리말

(주)도루코 기술연구소는 연구 인력과 칼날을 생산하는 라인 근로자까지 70여명의 전형적인 중소기업모사기업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무재해 4배를 기록할 만큼 글로벌기업에 걸맞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칼날 제품에서 세계에 그 명성과 위상을 높이며 그 세력을 뻗어가고 있는 (주)도루코 기술연구소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세계 속에 안전 으뜸 기업으로 탈바꿈할 태세이다.

공정에 분포된 다양한 위험요소

(주)도루코 기술연구소에는 면도기에 들어가는 날을 연구하

고 생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날을 직접 생산하는 관계로 생산 공정에서의 위험요소가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 연구를 위한 가공 기계 취급에서 오는 안전사고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곳 (주)도루코 기술연구소의 작업 특성이다. 생산 공정은 입고과정을 통해 면도날 모양을 만드는 펀칭 프레스 공정을 거쳐, 검사, 열처리, 연마, 절단, 탈지, 코팅 공정을 거쳐 최종 출하된다.

많은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철, 칼날 등 원재료 취급에 있어 창상 등 사소한 사고 위험이 많다. 뿐만 아니라 원재료 입고공정에서 지게차 취급 시 근로자 충돌 등 지게차 관리소홀 및 운전미숙으로 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잠재하고 있고, 펀칭 프레스





공정에서의 협착 위험, 열처리 공정에서의 화상 위험, 연마 공정에서의 이물질 비산에 따른 근로자 상해 등 크고 작은 사고 위험이 (주)도루코 기술연구소에는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현재 무재해 4배수를 기록 중에 있다.

이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고, 관리소홀, 취급소홀에서 올 수 있는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배제시키며,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

(주)도루코 기술연구소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면 투자와 지원, 그리고 연구에 적극적이다. 연마된 면도날을 코팅하기에 앞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탈지공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금속물질 탈지와 지방·기름 제거용으로 사람에게 유해한 유기용제이다. 그러나 (주)도루코 기술연구소는 이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근로자가 중독될 수 있다는 이유이다. TCE를 대체할 탈지법을 자체 연구 끝에 개발한 것이 물로 탈지하는 수계탈지 방법이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 개발로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좋은 사례이다.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한 이곳의 활동도 실속이 있다. 안전 교육을 앞세워 확고한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주)도루코 기술연구소로 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원재료 취급에서 올 수 있는 사소한 상해조차도 용납하지 않으며 신입시절부터 안전의식과 안전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 안전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꼼꼼히 전수한다. 365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이곳에서 꼽을 수 있는 자랑거리이다. 365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지회 이승녕 차장도 한몫을 톡톡히 하며, 근로자 마음에 안전의 씨앗을 확고히 심어주고 있다. 그

러나 (주)도루코 기술연구소의 안전마인드는 안전교육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TG 생산 6대 준수 캠페인”에서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안전의기본인 정리·정돈을 생활화하는 “5S 생활화”에서 실천하는 안전을 보여준다.

효과적인 안전관리 펼쳐

지금까지 (주)도루코 기술연구소의 안전은 안전의식 고취에 치중하며 무재해 4배수를 달성했다. 앞으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곳 사람들 생각이다. 이에 (주)도루코 기술연구소는 분임조 안전관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타사의 위험예지훈련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도루코 기술연구소만의 위험예지 활동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세계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경영방침 아래, (주)도루코는 글로벌기업으로 나아가갈 준비를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에 걸맞는 안전관리 정착

올해 저희 회사에서는 Global DORCO Bic3 2015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인지 여느 때와는 달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가 무재해 4배를 달성한 해로 그 의미는 남다르나, 안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갖게 됩니다.



백학기 소장

무재해 4배를 달성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없다고 목표가 달성되었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면도날을 제조하는 하루 하루가 무사고의 목표가 되기 위해 우리 (주)도루코 기술연구소 임직원 모두는 일심동체가 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안전관리 영역 또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를 강조해 왔다면 앞으로는 규모에 맞는 시스템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 중 작업자와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팀워크가 있고, 이를 통해 공정의 불안정한 안전요소를 사전에 감지하여 개선 한다면, 우리의 안전은 국제화 수준에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